

AI 뉴스와 용어
월·수·금 오전 7시무료 · 연재든 수신거부
metallab.ai

비즈니스

소스턴 창업자 로건 브라운, 빅로 축소 전망 기고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처음 맡은 일이 문서 18세트의 서명란 길이를 맞추는 것이었다고 그는 적었어요. 그 자리를 AI가 가져가는 편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낫다는 것이 기고문의 결론이에요.



비즈니스 · 소스턴 창업자 로건 브라운, 빅로 축소 전망 기고

소스턴 창업자 로건 브라운이 AI가 법률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기고문을 냈어요. 하버드 로스쿨을 마치고 처음 들어간 로펌에서 그가 받은 첫 업무는 서로 다른 문서 18세트의 서명란 길이를 손으로 똑같이 맞추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는 동안 로펌이 의뢰인에게 시간당 600달러 넘게 청구했다고 그는 적었어요. 화려한 학위를 가진 신입 변호사에게 법률과 무관한 일을 시키고 높은 시간당 요금을 받는 관행은 오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데, 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기고문의 출발점이에요. 브라운이 내놓은 전망은 기술이 검색을 바꾼 방식과 법률 산업에 벌어질 일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는 기고문에서 "10년 뒤면 많은 빅로 로펌이 지금 자기 모습의 뼈대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썼어요. 대형 로펌이 축소되는 동안 양질의 법률 서비스에 닿을 수 있는 범위는 크게 넓어지고, 지금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 의뢰인에게 쏠려 있는 이점이 평평해진다는 설명이에요. 졸업하고 들어간 업계가 이미 완전히 달라졌다는 문장으로 그는 그 변화를 요약했어요.

근거로 든 것은 법률 AI로 몰린 돈이에요. 하비와 레고라가 5년이 안 되는 사이에 등장해 대형 로펌 쪽 변화를 촉발했고, 두 회사는 스포츠 리그를 후원하고 광고판에 유명인을 내거는 식으로 법률 회사보다 기술 회사처럼 움직인다고 그는 적었어요. 메탈이 확인한 하비의 공식 발표문에는 9월 9일 5억 5,000만 달러를 조달해 기업가치 155억 달러를 인정받았다고 적혀 있어요. 라운드는 디퓨전과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이끌었고, 세퀴아와 클라이너 퍼킨스, a16z, 코투, 골드만삭스 얼터너티브스 같은 기존 투자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하비 공동창업자 윈스턴 와인버그와 게이브 페레이라는 그 발표문에서 "기업이 AI로 자기 경쟁 우위를 끌어올릴 기회가 지금보다 컸던 적이 없어요"라고 했어요. 같은 글에 따르면 미국 대형 로펌 순위 Am Law 100에 드는 곳의 80%가 하비를 쓰고 있고, 포춘 10대 기업 가운데 다섯 곳의 사내 법무팀도 고객이에요. 이번 조달은 하비가 처음으로 사후학습한 공개 가중치 모델과 법률 에이전트 벤치마크 Harvey LAB을 내놓은 뒤에 이뤄졌어요.

법률 소프트웨어를 파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업계의 오랜 농담이었어요. 파트너 변호사에게는 효율을 끌어올릴 동기가 없고, 비싸게 익힌 기술을 다시 배울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 자리가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가 됐다고 그는 적었어요. 대형 로펌들이 이름난 엔지니어를 데려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술 회사로 바뀌고 있고, 법과 기술이 이렇게 맞붙는 일은 자신이 로스쿨에 다닐 때는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클라우드 공식 계정, 사용자 제작물 쓰레드 공개

두 번째 변화는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의 인프라와 훈련 체계가 더는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간판급 변호사가 자기 고객을 통째로 데리고 걸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는 크리스 커처가 퀸 이매뉴얼을 떠나 기술 중심의 작은 로펌을 차린 것을 예외가 아니라 이른 사

웠어요. 열두 살 때 캔자스주 로렌스의 지방검사 사무실에 이력서를 들고 찾아가 인턴 자리를 얻었고, 학교가 끝나면 주 40시간 넘게 그곳에서 일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저는 늘 기술과 법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간극을 잇고 싶었어요"라고 말했어요.

소스턴은 AI와 소수의 변호사, 고정 요금을 묶은 로펌이에요. 지금 당장 빅로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들이 챗GPT에 먼저 물어보는 초기 단계를 맡겠다는 쪽이에요. 법인 설립과 초기 직원·자문 영입, 일상적인 질문을 처리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서비스는 필요한 계약서를 요청하면 맞춰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큰 로펌을 이미 쓰는 회사들도 굳이 그쪽에 들고 가지 않을 작은 일을 소스턴에 맡긴다고 그는 설명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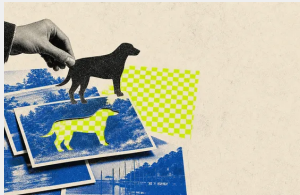
돈과 규모도 그 방향을 가리켜요. 설립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목시 벤처스가 이끈 프리시드로 250만 달러를 모았고, 스트로브와 코얼리션, 카테리나 페이크, 플렉스가 참여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500곳 넘는 기업에 서비스를 했고 대기자 명단에는 스타트업 2,500곳이 올라 있어요. 기고문에서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AI 기반 로펌에 매일 수백 건의 지원서가 들어온다고 적었어요.

법률계 전체가 이 변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에요. 변호사들은 환각과 실수를 비롯한 기술의 결함을 지적하고 있고, 브라운도 전문직에서 AI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적었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실무 방식이 이미 바뀌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에요. 메탈은 호주 로펌 길버트+토빈이 챗GPT 활용 사용률 87%로 법률 업무를 자동화한 사례를 보도한 바 있어요.

이 기고문의 저자는 경우 로펌이 소규모인 시점의 경우

오늘 지면

- 비즈니스
소스턴 창업자 로건 브라운, 빅로 축소 전망 기고
- AI
오픈AI, 챗GPT 플러그인 다중 계정 지원
- AI
오픈AI, 24시간 3D 제작물 모음 공개
- AI
오픈AI, 호주 청소년 안전 블루프린트 발표
- AI
오픈AI, Hex 데이터 시각화 사례 공개
- AI
알리바바, 복부 CT 진단 모델 RADAR 공개



알리바바 큐원, Qwen-Image-2.1 공개



알리바바 큐원, 실시간 동시통역 모델 공개

이 지면은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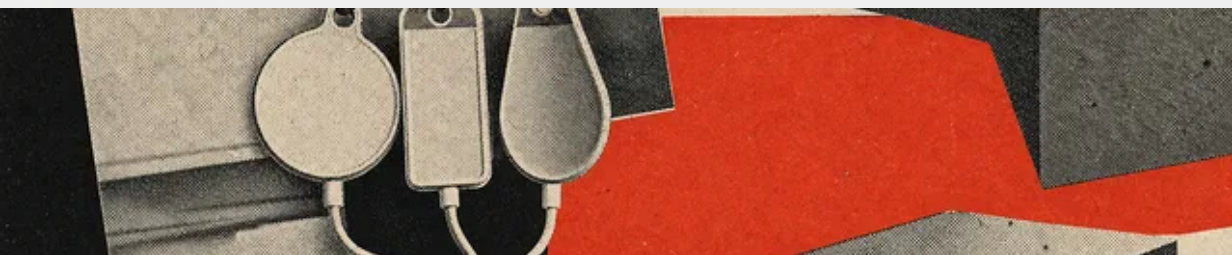
오픈AI, 호주 청소년 안전 블루프린트 발표

오픈AI가 호주 청소년 안전 블루프린트를 발표했어요. 2026년 9월 18일 공개된 이 문서는 정책 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여섯 개 기둥을 담았고, 메탈이 확인한 원문 PDF는 표지와 서문을 포함해 7쪽이에요. 호주 정부가 온라인 안전 개정 법안 2026 초안을 협의에 부쳐 둔 시점에 맞춰 나왔어요. 문서의 성격부터 보통의 제품 소식과 달라요. 챗GPT라는 대화형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자기 이용자 가운데 10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 2면에 계속

AI

오픈AI, 챗GPT 플러그인 다중 계정 지원



오픈AI가 챗GPT의 대부분 플러그인에서 계정을 여러 개 연결할 수 있게 열었어요. 회사 계정과 개인 계정을 한 대화 안에 함께 올려 두고, 모델이 요청에 맞는 계정을 골라 도구를 부르는 방식이에요.

맥스 슈토이버 오픈AI 플러그인·MCP·스킬즈 담당은 9월 18일 X에 "오늘부터 챗GPT의 대부분 플러그인에서 여러 계

▶ 2면에 계속

AI

오픈AI, 24시간 3D 제작물 모음 공개



오픈AI 개발자 계정이 GPT-6 Astra로 만든 3D 제작물 모음 영상을 올렸어요. 협정 세계시 9월 19일 0시 56분에 올라온 19.5초짜리 세로 영상이고, 계정은 "여러분의 가장 거친 GPT-6 Astra 3D 제작물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해냈어요"라고 적었어요. 영상은 하루짜리 공모에 들어온 출품작을 이어 붙인 것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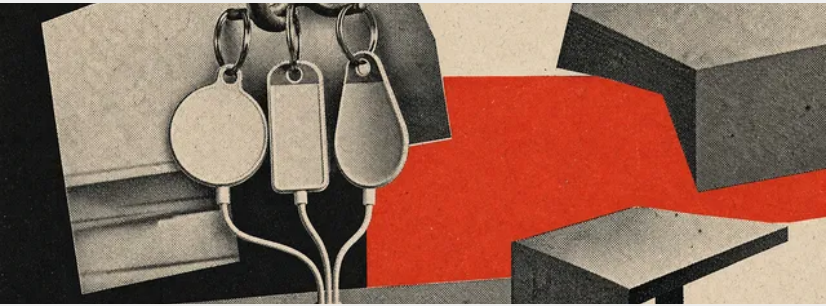
▶ 2면에 계속

공모를 연 사람은 회사 바깥에 있어요. 크리에이터 로베르토 님슨이 오픈AI 개발자 계정과 함께 GPT-6 Astra로 3D에서 만든 것 중 가장 거친 것이 무엇이라고 물으며 24시간을 켜고, 그 요청 포스트는 조회 30만 회를 넘겼어요. 마감 뒤 그는 "시간 다 됐어요. 여러분은 24시간 동안 풀리곤으로 말할 기회를 받았어요"라며 제작물 열 건을 번호를 붙여 인용한 쓰레드를 올렸어요.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챗GPT 플러그인 다중 계정 지원



- 1 오픈AI가 9월 18일 챗GPT 대부분의 플러그인에서 계정 여러 개를 동시에 연결하는 기능을 열었어요.
- 2 연결된 계정은 모두 모델에 노출되고, 도구 호출마다 선택된 계정의 자격증명과 권한이 쓰여요.
- 3 기존 플러그인은 수정 없이 동작하지만, 계정 라벨과 중복 감지를 제대로 받으려면 프로필 톨을 선언해야 해요.

이용자가 만지는 자리는 플러그인 설정 페이지예요. chatgpt.com/plugins 디렉터리에서 이미 연결해 둔 플러그인에 계정을 하나 더 붙이면 끝이에요. 오픈AI 문서에 따르면 연결된 계정은 전부 모델에 노출되고, 모델이 요청을 읽어 필요한 계정 하나 또는 여럿을 고른 뒤 도구를 호출해요. 호출 한 건마다 그 계정의 자격증명과 권한이 그대로 쓰여요.

개발자가 손볼 것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슈토이버는 같은 글에서 "개발자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자동으로 동작합니다" 라고 밝혔어요. 이미 돌아가는 MCP 서버는 그대로 두면 다중 계정이 붙어요.

대신 화면에 뜨는 이름표를 제대로 달려면 프로필 톨을 하나 더 열어야 해요. 인증된 자격증명이 가리키는 프로필을 돌려주는 읽기 전용 도구인데, 이름은 getprofile 이든 whoami 든 자유예요. 메타데이터에 meta 의 openai/profile 값을 true 로 선언해 두면 오픈AI가 실행 중에 그 도구를 찾아 부르고, 응답을 검증한 뒤에 프로필 정보를 써요.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24시간 3D 제작물 모음 공개



- 1 오픈AI 개발자 계정이 협정 세계시 9월 19일 0시 56분 GPT-6 Astra 3D 제작물 모음 영상을 올렸어요.
- 2 공모는 크리에이터 로베르토 닉슨이 개발자 계정과 함께 24시간 동안 열었고, 결과는 열 건이에요.
- 3 제작자 팔로워는 64명부터 11만 명까지 벌어져 있고, 시도 횟수나 비용을 밝힌 출품작은 없어요.

숫자가 가장 큰 것은 세 번째 순번이에요. 슬립스니친 레나투스는 부품 33,302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구조 재조합 장면을 올렸고, 블렌더와 Astra 로 좋은 것을 많이 렌더링했지만 이 장면이 가장 눈에 띈다고 적었어요. 그는 구조를 분해하는 모델의 능력을 밀어붙이다 그 장면을 얻었다고 밝혔어요. 그의 팔로워는 64명이에요.

부품 3만 개짜리 장면을 모델이 좌표로 직접 찍어 내는 것은 아니예요. 쓰레드에 오른 제작물 상당수는 블렌더 같은 3D 도구를 모델이 스크립트로 조종하는 방식이고, 아드리안 카르비넨은 자기 작업을 Astra 와 블렌더로 만들었다고 적었어요. 모델이 내놓는 것은 형상 자체가 아니라 그 형상을 만드는 절차이고, 그래서 결과물의 복잡도가 모델 크기보다 도구의 표현력에 더 묶여요.

열 건이 전부 구경거리인 것도 아니예요. 로리 플린은 사르데냐의 실제 토지와 지형 데이터 위에 골프장 부지를 찾아내고 설계하고 기획하는 일을 시켰고, 스파이가이는 실제 단독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모델링하면서 "소규모 시공업자의 간극을 메우는 시스템을 이 작업 흐름 위에 만들어 보려 해요" 라고 적었어요. 로한 코테차는 웨어러블 기기를 자기 몸의 생체역학 모델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허리 통증 물리치료를 받는 방식을 올렸어요.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호주 청소년 안전 블루프린트 발표



- 1 오픈AI가 2026년 9월 18일 호주 청소년 안전 블루프린트를 발표했어요.
- 2 AI 리터러시, 연령 확인, 18세 미만 안전 정책, 조작적 출력 차단, 위기 대응, 부모 제어까지 여섯 개 기동을 담았어요.
- 3 기업의 이행을 외부가 평가하고 그 요약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문서의 마지막 절에 들어갔어요.

첫 기동은 AI 의 쓸모를 먼저 인정하라는 것이예요. 문서는 챗GPT를 쓰는 10대 열 명 중 아홉 명 가까이가 한 주 동안 학습과 정보 찾기, 기술 습득, 생산성 용도로 쓴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정책의 목표는 젊은 사람을 AI 에서 떼어 놓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비판적으로 쓰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적었고, AI 리터러시를 기회이자 안전 전략으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어요. 학교 도입은 교사가 속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붙었고, 생산성위원회가 교육기술과 AI 도구에 국가 차원의 접근을 권고했다는 사실도 근거로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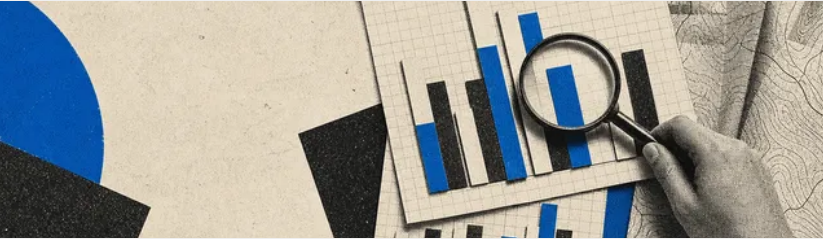
두 번째 기동은 연령 확인이에요.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면서 18세 미만과 성인을 구분하는 위험 기반 연령 추정 도구를 쓰라는 요구고, 가능하면 운영체제나 앱스토어가 가진 나이 정보를 쓰라는 제안도 들어 있어요. 오픈AI는 호주에서도 전 세계와 같은 방식을 쓰고 확신이 부족하면 더 안전한 경험을 기본값으로 둔다고 밝혔어요. 18세 미만으로 잘못 분류된 이용자는 제3자 신원 확인 업체 Persona 에 셀피를 보내 되돌릴 수 있고, 오픈AI 는 그 셀피와 제출 서류를 보지 않으며 Persona 는 확인 자료를 7일 안에 지운다고 적혀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1988 에 맞춰 수집을 계속 줄이겠다는 문장이 같은 절을 담아요.

세 번째 기동은 18세 미만 안전 정책이에요. 배포 전 시험과 배포 후 감시·집행으로 이행 상태를 평가하라는 요구고, 해해와 착취, 그루밍, 성착취 소재 같은 심각한 상황을 다룰 절차를 미리 갖추라는 내용이 이어져요. 서비스 안에서의 자원과 외부 자원 연결, 필요한 경우의 부모 통보가 그 절차의 구성 요소로 적혔어요. 기업이 자사의 아동 안전 정책을 공개해 가족과 이용자가 어떤 안전장치와 부모 도구가 있는지 알게 하라는 조항도 함께 있어요.

AI

오픈AI, Hex 데이터 시각화 사례 공개

오픈AI 가 9월 16일 에이전트형 데이터 플랫폼 Hex 의 GPT-6 아스트라 활용 사례를 공개했어요. Hex 는 아스트라를 시각을 제작만이 아니라 나온 답을 심문하는 검증 단계에도 쓰고 있어요.



- 1 오픈AI 가 9월 16일 Hex 의 GPT-6 아스트라 활용 사례를 스타트업 사례 글로 공개했어요.
- 2 케이틀린 콜그로브 Hex 공동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는 모델이 데이터 시각화를 오랫동안 어려워해 왔다고 말했어요.
- 3 Hex 는 아스트라에게 숫자가 말이 되는지, 질문에 답하는지, 사업 목표를 반영하는지를 되묻게 해요.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은 코드가 아니라 그 결과를 남에게 전달하는 일이에요. 오픈AI 가 9월 16일 올린 사례 글에서 에이전트형 데이터 플랫폼 Hex 의 케이틀린 콜그로브 공동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는 "데이터 작업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분석을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같은 글에서 그는 모델이 데이터 시각화를 오랫동안 어려워해 왔다고 짚었고, GPT-6 아스트라가 그 자리를 바꿨다고 밝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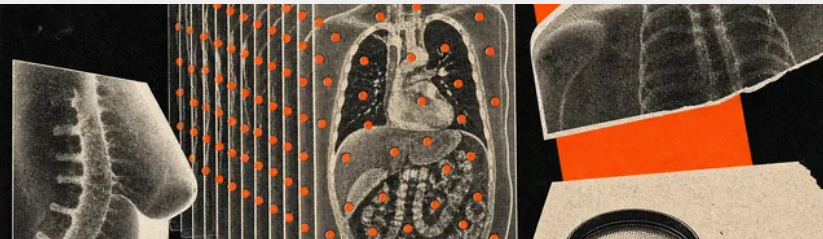
발표에 따르면 Hex 는 아스트라를 자사 데이터 에이전트에 넣어 분석의 답을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각물로 바꾸고 있어요. 오픈AI 는 이 글을 스타트업 사례로 분류하고 지역은 북미, 산업은 기술, 쓰인 제품은 API 라고 적었어요. 글에는 48초짜리 영상과 1분 45초 분량의 낭독 판이 함께 붙어 있어요.

콜그로브는 달라진 결과물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GPT-6 아스트라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설득력 있고 아름다운 데이터 산출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분석을 명확하게 전달할 뿐 아니라, 조직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실제로 자랑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것어요." 시각화의 값을 정확도가 아니라 공유 가능성으로 잴 문장이예요.

AI

알리바바, 북부 CT 진단 모델 RADAR 공개

알리바바 다모아카데미가 북부 CT 에서 소견 146개를 읽는 시각언어 모델 RADAR 을 사이언스에 싣고 코드와 가중치를 함께 공개했어요. 영상의학과 의사 26명이 참여한 판독 연구에서 대부분을 앞섰고, 의사가 함께 쓰면 진단 민감도가 약 10% 올랐어요.



- 1 알리바바 다모아카데미가 북부 CT 시각언어 모델 RADAR 을 사이언스에 싣고 코드와 가중치를 공개했어요.
- 2 조영증강 북부 CT 424,911건으로 수작업 주석 없이 학습했고, 내부 코호트 39,160건에서 AUC 0.913 을 기록했어요.
- 3 의사 26명이 참여한 판독 연구에서 대부분을 앞섰고, 함께 쓰면 진단 민감도가 약 10% 올랐어요.

알리바바 다모아카데미가 북부 CT 영상 한 건에서 소견 146개를 읽어 내는 시각언어 모델 RADAR 을 공개했어요. 논문은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고, 코드는 깃허브 에 아파치 2.0 라이선스로, 학습된 가중치는 허깅페이스에 CC BY-NC-SA 4.0 으로 같이 올라왔어요. 메타이 확인한 깃허브 저장소의 인용 정보에는 사이언스 393권 6817호 eaec6129 번으로 적혀 있고, 저자는 40명이에요.

북부 CT 는 판독이 까다로운 축에 들어요. 예브게니야 누시노비치 사이언스 편집자는 편집자 요약에서 북부 CT 를 두고 "북부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의 수가 많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소견이 놓치기 쉬운 미묘한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평가하기 더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 라고 적었어요. 그동안 나온 AI 는 지도학습과 사람이 붙인 주석에 기대어 훈련에 품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다룰 수 있는 질환의 폭이 좁았어요.

RADAR 이 택한 길은 병원에 이미 쌓여 있던 판독문이에요. 연구진은 조영증강 북부 CT 검사 424,911건과 해부 단위로 째지는 이미지 텍스트 쌍 1,500만 개로 모델을 학습시켰고, 임상 판독문에서 직접 배우게 해 별도의 수작업 주석을 붙이지 않았어요. 이 데이터셋에는 RAD-CT 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CT 부피를 해부 단위로 쪼갬 뒤 판독문의 해당 문장과 맞붙이는 방식이고, 판독문마다 표현이 달라지는 문제는 적응형 대조학습으로 처리했어요.

AI

알리바바 큐원, Qwen-Image-2.1 공개

큐원 팀이 9월 20일 이미지 생성과 편집을 한 모델로 묶은 Qwen-Image-2.1 을 열었어요. 시각 생성부는 7B 파라미터이고, 배경이 비어 있는 RGBA 이미지를 모델이 직접 만드어요.



- 1 알리바바 큐원이 9월 20일 Qwen-Image-2.1 가중치를 허깅페이스와 모델스코프에 공개했어요.
- 2 생성과 편집, 투명 이미지가 7B 파라미터 체크포인트 하나에 들어갔고 참조 이미지는 최대 10장까지 받아요.
- 3 컴피UI와 디퓨저스, vLLM-Omni, SGLang, LightX2V 가 첫날 지원을 컸고 라이선스는 Qwen Research License Agreement 예요.

알리바바 큐원 팀이 9월 20일 이미지 모델 Qwen-Image-2.1 을 공개하고 가중치를 허깅페이스와 모델스코프에 올렸어요. 시각 생성부가 7B 파라미터인 모델 하나가 글로 그림을 만드는 일과 이미 있는 그림을 고치는 일을 함께 하고, 배경이 비어 있는 투명 이미지를 곧바로 뽑아내요. 큐원 팀은 발표문에서 이 모델이 "생성 품질과 추론 효율, 비용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고 적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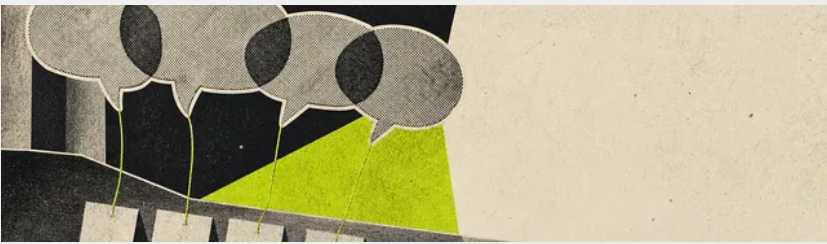
구조는 발표문과 저장소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트랜스포머는 32개 레이어짜리 단일 스트림 DiT 이고 파라미터는 7B 예요. 텍스트 인코더는 Qwen3-VL 8B 가 말아 지시문과 조건 이미지를 한 표현으로 묶고, VAE 는 공간을 16배로 압축하는 64채널 RGBA 오토인코더라 투명도가 모델 안쪽에서 처리돼요. 스케줄러는 플로 매칭에 오일러 이산 방식과 동적 시프팅을 엮었어요.

속도를 끌어올린 자리는 어텐션이에요. 텍스트는 토큰 단위 인과 마스크를 쓰고 이미지 생성은 청크 단위 마스크를 써서 입자 크기를 섞었고, 입력 이미지와 편집 지시문은 첫 스텝에서 한 번만 계산해 캐시에 두고 남은 스텝이 그대로 가져다 써요. 큐원 팀은 이 방식이 여러 장을 넣고 편집할 때 특히 추론 효율을 올리고 메모리 사용을 줄인다고 밝혔어요.

AI

알리바바 큐원, 실시간 동시통역 모델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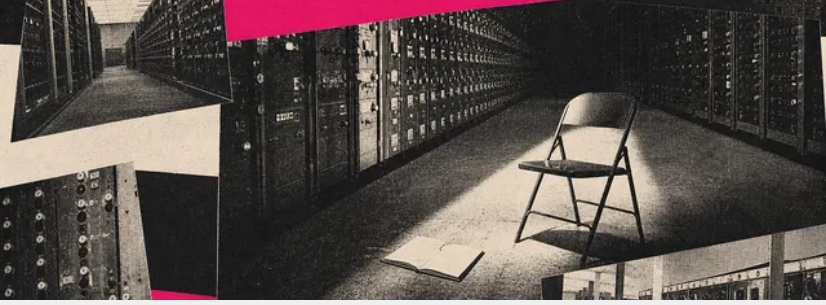
Qwen3.8-LiveTranslate 가 평균 지연을 2.8초에서 2.3초로 줄였어요. 여러 사람이 번갈아 말해도 문장마다 화자를 갈라 붙이고, 원문과 번역을 한 화면에 함께 띄워요.



AI

앤스로픽, 액센추어와 임베디드 평가 제휴

앤스로픽이 액센추어와 프런티어 AI 독립 평가를 함께하기로 했어요. 두 회사가 5년간 각각 최소 10억 달러를 쓰고, 평가자는 회사 안에서 직원에 준하는 접근 권한으로 일해요.



- 1 앤스로픽이 9월 18일 액센추어와 임베디드 평가 제휴를 발표했고, 일은 액센추어의 AI 조직 패컬티가 맡아요.
- 2 두 회사는 각각 5년간 최소 10억 달러를 쓸 것으로 보고, 이번 건의 비용은 앤스로픽이 직접 대요.
- 3 임베디드 평가자는 훈련 중인 모델과 배포 결정, 직원 면담까지 직원에 준하는 접근 권한을 받아요.

평가자를 회사 밖에 두는 대신 안으로 들인다는 약속이 계약서가 됐어요. 앤스로픽이 9월 18일 액센추어와 프런티어 AI 독립 평가를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회사는 이 제휴가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의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에서 한 약속, 곧 평가자를 앤스로픽 안에 상주시키겠다는 약속으로 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적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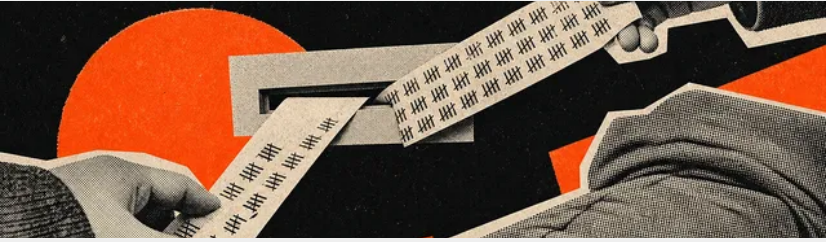
일은 액센추어의 AI 전문 조직 패컬티가 맡아요. 범위는 세 가지로 적혀 있는데 모델 평가와 레드팀, 정렬 평가, 그리고 모델 세이프가드 시험이에요. 앤스로픽은 액센추어가 여러 산업에서 기업과 정부의 AI 도입을 돕고 있고 기업이 실제로 AI 를 어떻게 쓰는지 아는 것이 그들의 안전 접근을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돈의 크기가 이 제휴의 성격을 말해 줘요. 두 회사는 각각 앞으로 5년간 이 분야의 역량을 쌓는 데 최소 10억 달러씩을 쓸 것으로 본다고 밝혔어요. 평가를 연구 과제가 아니라 사업 부문으로 세우겠다는 규모예요.

AI

메타, 인스트라트 보고서 반박문 공개

인스트라트 재단은 메타가 폴란드에서 사기 광고로 한 해 약 7억 6천만 즈위티를 벌였을 수 있다고 추산했어요. 메타는 그 계산이 세 날치 표본과 가정 위 에서 있다며 항목별로 맞섰어요.



- 1 인스트라트 재단이 9월 16일 폴란드 사기 광고 보고서를 냈고, 메타가 반박문을 공개했어요.
- 2 재단은 사기 광고가 노출 기준 10.85%, 한 해 약 7억 6천만 즈위티, 폴란드 매출의 37% 라고 추산했어요.
- 3 메타는 삭제 광고를 모두 사기로 친 분류와 유럽연합 전체 도달 수 사용, 세 날치 표본을 문제 삼았어요.

메타가 인스트라트 재단 보고서에 대한 반박문을 공개했어요. 재단은 9월 16일 폴란드에서 사기 광고로 메타가 한 해 약 7억 6천만 즈위티를 벌였을 수 있다고 추산했고, 메타는 그 계산이 잘못된 전제와 부정확한 정의 위 에서 있다고 항목별로 맞섰어요. 메탈이 확인한 보고서 원문 PDF 는 19쪽짜리 요약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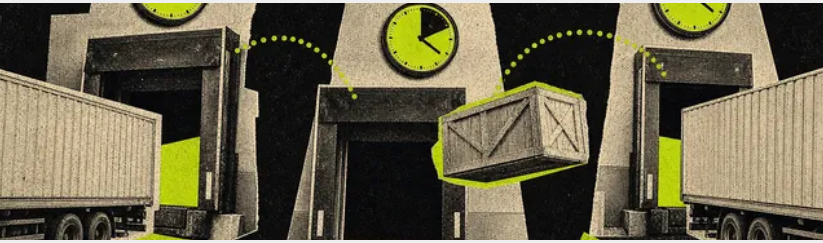
다툼의 무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광고 플랫폼이에요. 정확히는 그 플랫폼이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바깥에 열려 둔 광고 데이터 창구,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예요. 재단은 그 창구로 데이터를 긁어 추산했고, 메타는 그 창구에서 나온 숫자를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답했어요. 같은 데이터를 두고 벌어진 다툼이라 이 사건은 광고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측정의 문제예요.

재단이 내놓은 숫자는 네 개예요. 폴란드에서 메타 플랫폼에 나간 전체 광고 가운데 사기 광고가 노출 기준 평균 10.85% 였고, 그에 따른 메타의 하루 수입이 약 208만 즈위티, 한 해로 환산하면 약 7억 6천만 즈위티라는 계산이에요. 보고서는 메타의 폴란드 법인이 2025년에 올린 매출을 20억 3,385만 즈위티로 적고, 그 셈이 맞다면 사기 광고 수입이 폴란드 매출의 37% 에 해당한다고 밝혔어요. 네 번째 숫자는 광고 라이브러리에 아예 잡히지 않는 사기 광고의 비율 41% 예요.

AI

구글 리서치, 미들마일 물류 생성기 공개

구글 리서치가 미들마일 물류망 문제를 짚어 내는 오픈소스 생성기 MilleMiglia 를 공개했어요. 물류 회사가 독점 정보로 묶여 둔 탓에 공개 데이터가 없던 구간을 겨냥했어요.



- 1 구글 리서치가 9월 18일 미들마일 물류 인스턴스 생성기 MilleMiglia 를 깃허브에 공개했어요.
- 2 미들마일은 화물이 여러 차량을 갈아타는 구간이라 기존 차량 경로 문제 솔버를 그대로 쓸 수 없어요.
- 3 브레시아대학교, 파리 국립교량도로학교와의 협업이고 전용 솔버와 API 도 만들고 있어요.

물류 연구가 손대지 못하던 구간의 데이터가 오픈소스로 나왔어요. 구글 리서치가 9월 18일 미들마일 물류망을 흉내 낸 문제를 짚어 내는 오픈소스 도구 MilleMiglia 를 공개했어요. 광고-커머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에이만 로트피와 구글 리서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티보 퀴블리에가 함께 쓴 이 글은 소스 코드와 문서를 깃허브에 올렸다고 밝혔어요.

미들마일은 물건이 지역 물류센터 사이를 옮겨 다니는 구간이에요. 발표문은 이 구간이 여정에서 가장 긴 거리를 담당하고 전체 비용의 큰 몫을 차지하며 물건이 신신하게 도착하는지 상하는지를 결정한다고 적었어요. 그런데도 연구는 생산자에서 집하점까지의 퍼스트마일과 소비자에게 가는 라스트마일에 몰려 있었어요.

이유는 데이터예요. 글은 "대부분의 물류 회사는 자사 네트워크 구조와 수요 물량을 매우 민감한 독점 정보로 다뤄요" 라고 적었어요. 공개된 고품질 데이터가 없으니 학계의 진전이 막혀 있었다는 설명이에요.

AI

젠슨 황, AI 종말 확률 0% 발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현지시간 9월 20일 방영된 방송 인터뷰에서 2030년 AI 종말 확률을 0%라고 말했어요. 새 규제는 필요 없고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혔어요.



- 1 젠슨 황 엔비디아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가 9월 20일 방영된 방송 인터뷰에서 AI 종말 확률을 0%로 못 박았어요.
- 2 그는 제조물 책임과 무단 침입을 다루는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며 새 AI 규제에 반대했어요.
- 3 몇 주 전 그는 회사가 통제를 벗어났다고 느끼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젠슨 황 엔비디아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가 AI 가 인류를 끝낼 확률을 0%로 못 박았어요. 현지시간 9월 20일 방영된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2030년은 세상의 끝이 아닐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끝이 될 확률은 0%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어 "사람들을 겁주는 일은 불필요합니다. 무책임한 일이에요" 라고 덧붙였어요. 종말 경고를 내놓은 쪽이 연구자와 경쟁 연구소 최고경영자들이라, 이 발언은 업계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 반박이에요.

그가 답한 상대는 분명해요. 이달 초 전 앤스로픽 연구자 제이컵 콕슨이 소셜미디어에 AI 개발자들이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그것이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고 적었고, 그 글이 공개 논쟁에 불을 붙였어요.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업계 인사들의 개발 속도 조절 요구도 같은 흐름에 있어요. 메탈은 아모데이가 프런티어 속도 조절과 외부 평가자 상주를 제안하는 에세이를 냈다고 보도한 바 있어요. 황은 이런 예측이 "과학에 근거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누가 이 말을 하는지도 사실의 일부예요. 엔비디아의 칩은 오픈AI 등이 만든 AI 에 이전트가 정보를 찾아 엮을 때 쓰는 대형 언어 모델을 돌리고, 그 수요가 회사 가치를 5조 3천억 달러까지 밀어 올려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회사로 만들었어요. 회사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서 그를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황은 안전한 배포가 회사에 이익이라고 답했어요. "우리 회사의 성공은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한 배포와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그걸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 가치는 줄어든 겁니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

비즈니스

미국 정보처리장비 투자, 주택 투자 추월

미국 경제분석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정보처리장비 지출이 7,520억 달러로 주택 고정투자 7,48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주택은 2021년 초 정점 대비 18% 줄었고 정보처리장비는 같은 기간 51% 늘었어요.



- 1 실질 정보처리장비 지출이 2분기 7,520억 달러로 주택 고정투자 7,480억 달러를 추월했어요.
- 2 주택은 30년 모기지 금리 7%대에 눌러 얼어붙었지만 AI 투자는 금리에 덜 반응했어요.
- 3 S&P 글로벌은 여섯 하이퍼스케일러 자본지출이 2027년 1조 3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20년 전 미국 경제의 성장을 끌던 것은 주택이었어요. 지금은 컴퓨터예요. 미국 경제 분석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민간 주택 고정투자는 7,480억 달러로 2021년 초 정점보다 18% 줄었고, 같은 기간 51% 늘어난 정보처리장비 지출이 7,520억 달러를 기록하며 주택을 추월했어요. 데이터센터와 컴퓨터 하드웨어가 들어 있는 항목이에요.

이 교차를 짚은 사람은 애덤 샤피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부총재이고, 그가 가리킨 것은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로 들어가는 설비 투자예요.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우리는 미국 경제의 중대한 전환을 보고 있습니다. 투자가 주택에서 컴퓨터로 옮겨 가고 있어요" 라고 적었고 "AI 투자 붐은 거대합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보도에 따르면 그는 주택 투자가 차입 비용에 훨씬 민감하다는 점도 같이 지적했어요.

두 투자가 갈라진 자리에 금리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7%에 가깝고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아요. 주택은 이 숫자에 눌러 2022년 이후 대체로 얼어붙어 있는데 AI 투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쌓아 둔 현금을 털어 쓰는 데 더해 채권을 찍기 시작했고, 메탈은 알파벳이 호주에서 첫 채권을 발행해 36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알파벳은 올해 초 마이너스 현금흐름을 보고하기도 했어요.

비즈니스

타입세이프, 결정 모델 Jev 공개

챗GPT 연구에 참여했던 디오고 알메이다가 세운 타입세이프AI가 9월 15일 글자 대신 결정을 돌려주는 모델 Jev 를 내놔어요. 버셀은 나흘 만에 자사 게이트웨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채택된 모델이라고 발표했어요.



- 1 타입세이프AI가 9월 15일 시스템 원 모델이라는 부류의 첫 모델 Jev 를 공개했어요.
- 2 입력 토큰은 100만 개에 0.042달러, 출력 토큰은 무료이고 응답은 70밀리초에서 500밀리초 사이예요.
- 3 버셀은 출시 24시간째 유료 팀의 약 13%가 Jev 를 썼다며 게이트웨이 역사상 가장 빠른 채택이라고 밝혔어요.

디오고 알메이다는 챗GPT를 만든 연구자예요. 오픈AI에서 언어 모델이 사람 말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세웠고 그 연구가 챗GPT로 이어졌는데, 정작 그는 거기서 실망했다고 말해요. 보도에 따르면 그는 "우리는 병 속에 번개를 담아 놓고도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2년 전 회사를 나와 차린 타입세이프AI가 9월 15일 내놓은 모델 Jev 는 그 실망에서 출발했어요. 글자를 만들지 않고 결정만 돌려주는 모델이에요.

공개 나흘째, 버셀은 자사 AI 게이트웨이에서 Jev 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채택된 모델이 됐다고 발표했어요. 출시 24시간 안에 이전 어떤 모델보다 두 배 넘는 유료 팀이 썼고, 12시간 만에 비교 대상 모델을 모두 앞질렀으며, 24시간째에는 유료 팀의 약 13%가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셀은 이 수치가 GPT-5.6 계열의 두 배이고 Fable 5.1 점유율의 여섯 배가 넘는다고 적었어요. 최근 출시된 다른 모델들은 하루가 지나도 7%에 닿지 못했어요.

Jev 가 하는 일은 고르는 일이에요. 응용프로그램이 상태와 질문 묶음을 보내면 모델은 질문을 한꺼번에 병렬로 평가해서 선택지나 점수, 참과 거짓을 확률과 함께 돌려 줘요. 선택지는 최대 255개까지 받고, 답은 미리 정해 둔 형식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도구 네 개 중 하나를 고르는 에이전트가 다섯 번째를 지어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비즈니스

엑시오스 창업자들, 신간 심플리파이 출간

AI 가 일을 덜어 줄 거라던 약속이 더 긴 메일과 더 많은 엑스로 돌아왔다는 진단에서 시작한 책이에요. 세 창업자는 자기 회사에서 사업을 먼저 잘라 내 직원들 매출을 75% 올린 경험에서 출발했어요.

